

2023. 5. 17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. 5. 17.(수)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

구조대책팀장	이 낙 규	02-3706-1420
담 당 자	이 재 정	02-3706-1421
	주 원 철	02-3706-1425

사진있음 ■ 매수 : 3매

서울시, 풍수해 대비 시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대응 대책 추진

-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에 나서...
- 광범위 재난 예상시 선제적 '광역대응 단계'발령 및 통합대응 체계 구축
- 풍수해 비상상황실 기능 강화, 지하주택 침수상황 등 재난 유형별 인명구조훈련
- 침수에·경보 발령시 지하공간 침수 구조활동 준비태세 돌입, 재난사고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

-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긴급구조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”라고 17일(수) 밝혔다.
-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8월과 같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나 태풍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마련했다.
-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동시다발 재난대응에 한계가 드러난 기존 국소지역 중심의 대응방식을 개선하여 올해부터는 태풍 등 광범위한 재난 예상 시 선제적으로 ‘광역대응 단계’를 발령하고,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.

- 이를 통해 재난 초기부터 서울소방의 인력과 장비가 피해예상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
-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지난해 8월 8일 강남지역 집중호우 때와 같은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평시 24대의 신고접수대를 유사시 40대로 확대 가동한다.
- 또한 비상단계 상황에 따른 필요인력도 증원하여 상황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비상상황 선포에 대비해 일선소방서의 비상상황실 기능도 함께 보강한다.
- 지난해 집중호우 시간대 반지하 주택 등에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는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지하주택 침수상황이나 도심 속 하천 고립사고 등 관내 특색에 맞는 다양한 풍수해 재난 유형별 인명구조훈련도 추진한다.
- 아울러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장마 전에는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내수면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등의 점검에 나선다. 구조보트, 수중펌프 등 인명구조장비는 100% 가동태세를 유지한다.
 -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서울시내 주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멍조끼, 구멍환, 로프가 비치되어 있어 급류발생 등 위급상황시에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.
 - 풍수해 대비 위기경보 발령 시 순찰 등이 실시되는 취약대상은 지하철도 등 683개소이다.

표1) 서울시 여름철 풍·수해 취약대상('23)

(단위: 개소)

계	침수우려 지역	하천	빗물 펌프장	수상시설	대형 공사장	지하차도	한강 주차장	기타
683	44	28	120	58	139	163	60	71

출처 : 서울소방재난본부

- 이 밖에도 집중호우 등으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다수 사상자 구급이송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인명구조에 나설 계획이다.
- 인명구조 등 긴급대응이 완료되면 재난현장의 복구를 위해 침수 피해 지역의 배수·급수, 비상전력 지원 및 안전점검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.
-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“여름철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등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추진하겠다”며 “이를 통해 비상시 총력 대응하여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